

은행

산업이슈 브리프 |

Check Point

- 은행권 2조원 규모 상생금융안 발표
- 이자환급 및 기타지원 방식
- 직간접적 비용부담 확대 불가피

상생금융안 발표

Analyst 전배승 _ bsjun@ebestsec.co.kr

은행권 2조원 규모 상생금융방안 발표

- ▶ 전일 은행권은 상생금융안(민생금융 지원방안)을 발표.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원+ α 규모로 지원. 국책은행을 제외한 18개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
- ▶ 구체적으로는 1)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1.6조원(인당 평균 85만원)을 이자환급(캐시백)하고, 2)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0.4조원을 지원하는 조치. 1)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% 초과 이자납부액의 90%(감면율)를 지급하며, 차주당 300만원을 총 한도로 설정. 은행별로 일부 기준을 자율조정 가능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
- ▶ 2)의 경우 이자환급 이외의 방식(임대료 지원 등)으로 소상공인과 기타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보증기관 또는 서민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
- ▶ 한편 은행권 이외의 2금융권 차주에 대해서는 5~7%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 등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원의 정부예산을 별도로 설정(중진기금)

직간접 비용 발생 불가피

- ▶ 국내 일반은행의 23년 3분기 누적 합산 순이익은 11.9조원이며 연간 15조원 수준이 예상됨. 2조원의 상생금융 규모는 23년 예상순이익 대비 13% 수준.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대형은행일수록 부담규모도 클 것
- ▶ 상생금융 논의 확대 은행권의 직간접적 비용부담 가중요인. 공공적 역할이 강조로 인해 향후 대출금리 인하 및 가산금리 축소압력 등에 노출될 여지가 있음

그림1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

구분	내용
참여은행 및 재원조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하여 "2조원+α" 규모로 추진 ○ 산업·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은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 ○ 산업·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 통해 추가적 지원(+α)
지원 방안 (2조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통 프로그램: 이자환급(1.6조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3.12.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보유한 차주 대상 1.6조원 규모 이자환급 시행 (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% 초과 이자 납부액 90% 환급, 차주당 300만원 한도) - 은행별 부담여력 감안하여 지원 기준 자율적 조정 가능, 부동산/임대업 제외 - 187만명 개인사업자에게 총 1.6조원(인당 평균 85만원) 예상 - '24.1월 중순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 완료, '24.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 개시 예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율 프로그램: 이자환급 이외방식(0.4조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자환급이외 방식(전기료, 임대료지원 등)으로 소상공인 지원, 보증기관 출연 등 - '24.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 완료

자료: 금융위원회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전배승)
-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 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 합계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기대 -15% 이하 기대	91.4% 8.6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20%에서 ±15%로 변경
		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22. 10. 1 ~ 2023. 9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